

올해 국내 조선업 수주액 7배 '껑충'… 슈퍼 사이클 초입

LPG 운반선 수주 확대 등 호조
조선 3사 수주금액 약 16조
과거 슈퍼사이클 흐름과 비슷

국내 조선업계가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수주 확대 등으로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글로벌 경기회복세로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조선업의 선행지표인 해운 업황이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연초부터 수주 랠리를 이어가며 2000년대 호황기 시절을 뛰어 넘는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조선업계에 슈퍼 사이클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3사의 수주금액은 145억 1000만 달러(약 16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21억 7000만 달러)보다 7배가량 늘었다. 이 기간 한국조선해양은 총 86척, 72억 달러어치를 수주해 금액 기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 2016년 인도한 초대형LPG선

준으로 지난해(12억 9000만 달러)보다 6배 증가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22억 1000만 달러, 삼성중공업은 51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각각 6배, 10배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세계 선박 발주가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수주량은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컨테이너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주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 업체 클락

슨리서치에 따르면 올 1~4월 전 세계에서 총 1385만 CGT(표준선화산톤수)가 발주됐는데 그 중 한국은 647만 CGT를 수주했다. 올해 신조선 발주량은 지난해보다 24%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CGT는 선박의 부가가치,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한 무게 단위다.

특히 국내 조선업체들은 지난달 말까지 총 44척이 발주된 LNG선의 수주 점유율 70%에 육박하는 31척을 수주했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총 28척의 LPG선을 수주했는데, 이는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물량이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올해 총 9척의 LPG선을 수주하며 경쟁력을 입증 중이다. 올해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9척의 LPG선은 모두 8만m³(입방미터)급 이상의 초대형 LPG 운반선(VLGC)이다. 향후 LPG 운송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올 하반기에는 카타르 LNG 프로

젝트를 앞두고 있어 LNG선 수주 물량 확보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2020년 카타르와 체결한 슬롯 계약에 따라 LNG 선이 하반기부터 순차 발주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페트롤리엄(QP)은 노스필드 가스전 프로젝트에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과 각각 45척의 LNG선 건조 슬롯 계약을 맺었다. 슬롯 계약은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도크를 선점하는 것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업체들의 기술력이 LNG추진선 뿐만 아니라 초대형LPG추진선 분야에서도 입증 받으며 수주 물량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며 "과거 슈퍼사이클 진입 직전인 2003년과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신조 선박 가격도 오르고 있어 수익률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친환경 재생 파렛트 상용화

락앤락, 폐플라스틱 10t 무상 제공
재활용 파렛트 300개 제작·도입
2만160kg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

CJ대한통운이 락앤락과 협력해 제작한 친환경 재생 파렛트를 상용화하며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으로 제작한 친환경 재생 파렛트 '탄소ZERO 파렛트' 300개를 자사 물류센터에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친환경 유니폼에 이어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탄소ZERO 파렛트는 CJ대한통운의 물류 파트너사 락앤락과의 기기투합으로 탄생했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플라스틱으로 다양한 자원순환 활동을 실천 중인 락앤락이 친환경 파렛트 제작을 위한 양질의 폐플라스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CJ대한통운에게 10톤을 무상 제공했다.

파렛트는 물류 현장에서 물품을 적재하고 지게차 등으로 나르는데 사용하는 반침대를 말한다.



'탄소ZERO 파렛트'가 CJ대한통운 신덕평물류센터에 입고되고 있다.

탄소ZERO 파렛트 1개 제작에 들어가는 폐플라스틱은 28kg으로 이를 폐기할 때 발생하는 탄소는 약 67.2kg에 달한다. 300개 파렛트를 폐플라스틱으로 제작하면 2만 160kg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소나무 672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같은 수준이다.

탄소ZERO 파렛트는 제작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도입 후 실사용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조립식 파렛트로 제작돼 수리 및 재활용이 쉽기 때문이다. 파손시

에는 해당 부분만 교체해 즉시 원상복구 가능하며 파손된 부분은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다.

파손될 경우 전체 폐기 처리가 불가피했던 기존 고정식 파렛트 제품과 비교하면 비용절감은 물론 탄소저감 효과까지 추가로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CJ대한통운은 조립식 파렛트에 대한 국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맞춤형 포장 물류 업체 '상진ARP'와의 협력을 통해 파렛트를 제작했다.

탄소ZERO 파렛트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하중용 파렛트로 최대 1톤까지 적재가 가능하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탄소ZERO 파렛트는 단순한 자원절약 캠페인이 아니라 물류사업의 지속 가능한 리사이클링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탄소배출감소를 위한 락앤락과 협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하반기 탄소ZERO 파렛트를 국내뿐 아니라 자사의 해외 거점에서 사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김승호 기자

풀무원, CEO 주도 ESG 경영 나선다

'윤경 CEO 서약식' 참여

풀무원은 서울 서대문 핀란드타워에서 열린 제18회 윤경 CEO 서약식에 참여해 ESG 경영 실천의지를 담은 '서울 ESG CEO 선언'에 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윤경 ESG 포럼 주최로 열린 '윤경 CEO 서약식'에서 풀무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유원무 바른마음경영실장이 현장 참석했다. 이 효율 대표를 포함한 각 계열사 대표 등

했다.

풀무원 경영진은 '서울 ESG CEO 선언'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사회 가치 실현에 협력 ▲이해관계자에게 지속적인 ESG 가치 제공 ▲산업계의 ESG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한편,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윤경 ESG 포럼은 최근 ESG 경영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기존 '윤경 S M포럼'에서 '윤경 ESG 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약식을 '서울 ESG CEO 선언'으로 지정하는 등 CEO 주도의 ESG 경영 확산 활동에 본격 나서기로

/조효정 기자 princess@

경기도-부산시-서울시교육청
'웨일 스페이스 플랫폼' 활용

네이버가 경기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함께 '웨일 스페이스 플랫폼'을 활용한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앞장선다.

네이버는 지난 28일 경기도교육청과, 29일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30일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네이버 '웨일 스페이스 플랫폼'은 다양한 웹(web) 기반 서비스들을 웨일 브라우저 상에서 제공하고, 사용자는 웨일 계정 하나로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다. 네이버 웨일이 보유한 웹 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높은 기술력과 비용이 있어야만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별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솔루션' 형태로 탑재 할 수 있다.

업무협약을 통해 네이버와 경기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웨일 스페이스 플랫폼의 장점을 각 교육 현장에 적절히 도입함으로써, 기술 기반의 미래형 교육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는 웨일 스페이스 플랫폼을 교육분야에 특화한 '웨일 스페이스 포 에듀케이션(for Education)'을 통해 선생님과 학생들이 사용할 수업용 도구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수업 목적에 맞춰 선생님이 ▲브라우저 인터페이스 ▲연동 프로그램 ▲즐겨찾기 등

을 일괄 설정할 수 있어, 학생들이 수업을 위해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브라우저를 설정하지 않아도 동일한 수업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

네이버는 각 교육청 산하 일선 교육 현장서 '웨일 스페이스 for Education'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하고 학교에서 요청하는 필요 기능에 대해 적극 개발하는 등 유지보수 업무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각 교육청은 지역 교육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웨일 스페이스 for Education'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사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 정보를 취합해 네이버에 전달키로 했다.

특히, 네이버는 '웨일 스페이스 for Education'을 통해 만들어지는 교육 관련 데이터를 교육청에 제공한다. 웨일은 교육 관련 데이터는 교육기관과 선생님이 가장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정책을 수립했다.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교육 노하우는 물론, 새로 얻게 되는데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육 커리큘럼 개선점을 구상하는 등 교육수준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 정책은 네이버 웨일의 '유저 퍼스트' 전략의 일환이다.

한편, 네이버 웨일은 지난해 7월 경상남도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3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 세 교육청과 손을 잡아 다섯 곳의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했다. /체윤정 AI전문 기자 echo@



지난달 28일 경기도교육청 김기태 제1부교육감(사진 가운데 왼쪽)과 네이버 김효 책임리더(사진 가운데 오른쪽)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네이버, 교육청과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경기도-부산시-서울시교육청

'웨일 스페이스 플랫폼' 활용

네이버가 경기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함께 '웨일 스페이스 플랫폼'을 활용한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앞장선다.

네이버는 지난 28일 경기도교육청과, 29일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30일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각 교육청은 지역 교육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웨일 스페이스 for Education'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하고 학교에서 요청하는 필요 기능에 대해 적극 개발하는 등 유지보수 업무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각 교육청은 지역 교육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웨일 스페이스 for Education'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사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 정보를 취합해 네이버에 전달키로 했다.

네이버 '웨일 스페이스 플랫폼'은 다양한 웹(web) 기반 서비스들을 웨일 브라우저 상에서 제공하고, 사용자는 웨일 계정 하나로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다. 네이버 웨일이 보유한 웹 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높은 기술력과 비용이 있어야만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별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솔루션' 형태로 탑재 할 수 있다.

업무협약을 통해 네이버와 경기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웨일 스페이스 플랫폼의 장점을 각 교육 현장에 적절히 도입함으로써, 기술 기반의 미래형 교육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는 웨일 스페이스 플랫폼을 교육분야에 특화한 '웨일 스페이스 포 에듀케이션(for Education)'을 통해 선생님과 학생들이 사용할 수업용 도구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수업 목적에 맞춰 선생님이 ▲브라우저 인터페이스 ▲연동 프로그램 ▲즐겨찾기 등

을 일괄 설정할 수 있어, 학생들이 수업을 위해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브라우저를 설정하지 않아도 동일한 수업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